

## 지도상의 동해/일본해 명칭 : 과거, 현재, 미래

P. Ya Baklanov, S. S. Ganzei  
(러시아 과학원 소장, 부소장)

러시아 학자들은 동시베리아 지역을 17세기 중반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768년 모스크바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상에는 북쪽의 해역이 "Okhotsk"로, 남쪽의 해역은 "Korean Sea"로 표기되어 있다.

18세기 말까지의 러시아 지도들은 Korean, Quiet(Calm), East, Tatory, Tartary, Chinese, Japan과 같은 다양한 명칭들을 동해 표기 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동해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은 18세기말의 서유럽 지도집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는 동해를 East Sea 라는 한가지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1771년 "Britannic" 사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해역을 "Korean Sea"라고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Korean Sea"라는 명칭은 그 당시 러시아 지리서적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 증거로서, 러시아 학자 V. M. Golovnin은 1792년에 "Korean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후에 서유럽 지도들이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와 러시아의 지리 서적에서는 전통적인 명칭인 "East Sea"가 점점 많이 언급되거나 표기되고 있다. 또는, "East Sea/Sea of Japan"과 같은 병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북한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East Sea"로 표기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은 과거의 서유럽과 러시아 지도상에 가장 먼저 사용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았다.

동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공업개발지역으로 가장 빨리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동해에 대한 명칭은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명칭이 되어야 한다.

"East Sea/Sea of Japan"의 병기를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명 변경의 예로서, 국제수로국(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은 남극 대륙의 해역의 공식 명칭으로서 "Southern Ocean"의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